

# 대학생의 내적·외적 동기와 창업교육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 중심으로

정찬영<sup>1</sup>, 이소영<sup>2\*</sup>

<sup>1</sup>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산학교수, <sup>2</sup>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교수

##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utonomous and Controlled Motivation and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Integra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Chan-Young Chung<sup>1</sup>, So-Young Lee<sup>2\*</sup>

<sup>1</sup>Industrial-academic Cooperation Professor, College of Informatics, Korea University

<sup>2</sup>Professor, Department of Information Management, Hoseo Graduate School of Venture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대학생들의 창업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둘째,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셋째,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연구 가설을 설정하였고, 서울과 경기 지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251부의 설문응답을 수집하여 SPSS 24와 AMOS 23을 활용하여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창업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모두 창업 의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정(+)<sup>1</sup>의 방향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높일 수 있는 보다 효과적인 교육 정책 수립과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획 방안을 도출하는데 기여하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 대학생 창업, 계획된 행동이론, 자기결정 이론, 창업 동기, 창업 의도,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irst to analyze the effects of university students' autonomous motivations to start a business on their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cond to analyze the effect of university students' attitude toward entrepreneurship,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s, and third to analyze the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a research model and a research hypothesis were established. 251 questionnaire responses were collected through a survey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d empir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PSS 24 and AMOS 23.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the autonomous motivation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In addition, attitude, subjective norm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ll showed a positive effect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Entrepreneurship education for university students was found to control the effect of subjective norms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and the effect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on entrepreneurship intention in the positive direc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more effective educational policies and startup support program planning that can increase th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university students.

Key Words : University Students' Entrepreneurship, Theory of Planned Behavior, Self-determination Theory, Motivation for Entrepreneurship, Entrepreneurship Intention, Moder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rresponding Author : So-Young Lee(c Claire@hoseo.edu)

Received July 20, 2020

Revised September 2, 2020

Accepted September 20, 2020

Published September 28, 2020

## 1. 서론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혁신의 중요성과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을 통한 경제 성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혁신적인 스타트업들의 성공을 통해 만들어지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효과와 매출 규모는 국가의 경제발전 전을 견인하는데 중요한 동력이 되고, 이는 미국 실리콘 밸리의 스타트업 생태계 사례를 보더라도 그 가능성과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대학에서 미래의 창업의 주역이 될 수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창업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창업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은 무엇이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확인해 봄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교육 정책 수립과 교육 및 지원 프로그램을 기획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은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론 중 하나라 할 수 있다[1].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창업 의도는 창업을 수행하는 행동에 있어서 중심적이고 직접적인 예측 변수이다[2, 3].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행동 의도는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그 세 가지 요인이다. 그러나 계획된 행동이론만을 활용하여 창업 의도를 연구한 선행연구[3-11]에는 한계점이 있는데, 왜 창업을 하고자 하는지 창업 동기를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즉 창업의 동기가 창업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에 하는 내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와 주위 사람들의 압력을 받아서 창업을 하게 되는 외적 동기(Controlled Motivation)의 영향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선행연구 결과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행동을 수행한 사람들은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행동을 수행한 사람들보다 지속 가능성도 더 높고, 성과가 더 좋다고 확인되었다[12, 13]. Fayolle & Linan(2014)은 계획된 행동이론에 다른 이론을 통합한 통합모형을 활용하면 창업 의사결정 프로세스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다고 하였다[14, 15].

계획된 행동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계획된 행동이론과 Deci & Ryan(2000)의 자기결정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12]의 통합모형을 활용

하는 연구들이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창업 분야에서도 Fayolle et al.(2014)은 자기결정 이론의 내적 동기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거쳐서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15].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형은 재활치료 분야, 건강 분야 등에서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창업 분야에서는 해외에서도 최근에 선행연구가 발표되었고[16], 국내에서도 연구의 초기 단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17]. 따라서 본 연구의 차별점은 첫째, 창업 분야에서는 해외에서도 연구의 초기 단계인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형을 적용하여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이다. 이는 해외에서도 아직 연구의 초기 단계인 만큼 국내 창업학 분야 연구에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대학생들 대상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형을 창업 분야에 적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적, 실무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목적은 첫째, 재활치료 분야 등 다른 분야에서 검증된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형을 창업 분야에 적용하여, 이 통합모형이 창업 분야에서 유의함을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내적·외적 동기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거쳐서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창업에 대한 지속 가능성과 창업 성과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셋째 대학생 대상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높이는데 조절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여, 창업교육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대학들이 창업 교과목 및 창업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데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 2.1 계획된 행동이론

Ajzen(1991)의 계획된 행동이론은 창업 분야 연구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론 중 하나이다[1]. 계획된 행동이론에 따르면 창업 의도는 창업을 하는 행동의 직접적이고 핵심적인 예측 변수이다. 특정 행동에 대한 의도는

그 행동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자 하는 정도이다[18]. Ajzen(2002)은 사람들이 행동을 수행할지 결정할 때 사전에 계획과 의도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19]. 즉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특정 행동을 수행할 의도가 강할수록 그 행동을 실제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1]. 창업 분야 연구에서도 계획된 행동이론은 창업 의도를 이해하고 예측할 수 있는 우수하고 영향력 있는 모델로 평가받는다[14, 20].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행동에 대한 태도는 그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전반적인 평가를 의미한다[1]. 창업이라는 행동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는 그 행동을 수행했을 때 바람직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인식될 때 형성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 의도에 일관되고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5-7, 11, 21-25].

주관적 규범은 특정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을 때,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가족, 친한 친구 등)이 그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 11, 25, 26]. 일부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를 예측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약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다[3, 6, 21, 27].

지각된 행동통제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것이 어렵거나 혹은 쉽다고 인지하는 정도와, 그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는 정도이다[1]. 계획된 행동이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지각된 행동통제를 대신해서 자기효능감[28, 29]을 요인으로 사용한 연구들이 있는데, Ajzen(2002)은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 뿐 아니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19]. 또한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자기효능감 대비 창업 의도에 좀더 강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3, 6, 21, 24-26, 30].

## 2.2 자기결정 이론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한 창업 분야 선행연구들에서는 창업을 할 때 자신이 선택해서 창업을 하는 것인지, 창업을 하도록 압력을 받아서 창업을 하는 것인지, 창업의 동기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한계점이 있다. Deci &

Ryan(2000)의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특정 행동을 수행하는 동기가 그 행동과 의도에 에너지와 방향성과 지속성을 제공한다고 하였다[12]. 또한 사람들은 성장 및 성취에 대한 고유한 동기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배우고, 새로운 역량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자연스러운 동기적 성향이 있다고 하였다[12].

자기결정 이론에서는 행동을 수행하는 동기를 내재적(Intrinsic) 동기와 외재적(Extrinsic) 동기로 구분한다. 내재적 동기는 그 행동을 하는 것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어서, 혹은 그 행동을 하는 것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하게 되는 동기이다. 외재적 동기는 그 행동의 결과로 금전적 보상을 받거나, 자존감을 얻거나, 불이익을 피하는 등의 결과를 기대하는 동기이다.

Deci & Ryan(2000)의 선행연구에서는 외재적 동기를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통합된 조절(Integrated Regulation), 동일시된 조절(Identified Regulation), 투사된 조절(Introjected Regulation),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이다[12]. Deci & Ryan(2000)은 내재적 동기, 통합된 조절, 동일시된 조절의 3가지 동기를 자기결정 동기(Self-determined Motivation)로 구분하였고, 투사된 조절과 외적 조절의 2가지 동기를 비자기결정 동기(Non Self-determined Motivation)로 구분하였다[12].

여러 선행연구에서 자기결정 동기를 내적 동기(Internal Motivation) 혹은 자율적 동기(Autonomous Motivation)라는 명칭으로도 사용하고, 비자기결정 동기를 외적 동기(External Motivation) 혹은 통제된 동기(Controlled Motivation)라는 명칭으로도 사용하였다[32]. 본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의 명칭을 사용하였다.

자기결정 이론의 중요한 의미는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행동을 수행한 사람들은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행동을 수행한 사람들보다 지속 가능성도 높고, 성과가 더 좋다고 하는 점이다[12, 13].

## 2.3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

Hagger & Chatzisarantis(2009)는 창업을 하는 행동과 같은 계획적이고 의도적인 행동과 관련된 동기 부여 과정에 대한 이해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한계점을 보완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13].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은 동기가 부여된 행동에 대한 상호 보완적인 설명을 제공한다[13, 32, 33].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은 재활 치료 분야, 건강 분야 등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었다[33]. 다른 분야에서 연구되었던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창업 분야에서도 창업 의도에 대한 동기 부여 요소를 이해하고 보완적인 설명을 제공하는데,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즉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은 창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창업 의도를 이해하는데 좀 더 종합적인 체계를 제공해 줄 수 있다.

### 2.4 창업교육의 조절 역할

많은 대학에서 대학생들의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창업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높이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연구한 Shah et al.(2020)의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리고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각각 창업교육이 정(+의) 조절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34].

Asghar et al.(2019)의 선행연구에서는 계획된 행동이론의 연구모형에서 창업교육을 받은 그룹과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그룹을 t-test를 통해 검증한 결과,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 통제, 창업 의도의 4가지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35]. 즉 창업교육을 받은 그룹이 4가지 요인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평균 점수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창업교육을 연구한 선행연구[36-41, 49]에서도 창업교육이 창업 의도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3. 연구 방법

### 3.1 연구모형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13, 17, 42-44].

첫째 계획된 행동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둘째 자기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생들의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가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외적 동기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Luqman et al.(2018)의 선행연구에서는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4]. Li & Wu(2019)의 선행연구에서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3].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의 경우에, 외적 동기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셋째 창업교육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서, 창업교육을 조절변수로 구성하였다. 이 세 가지를 확인하고자 Fig. 1과 같은 연구모형을 구성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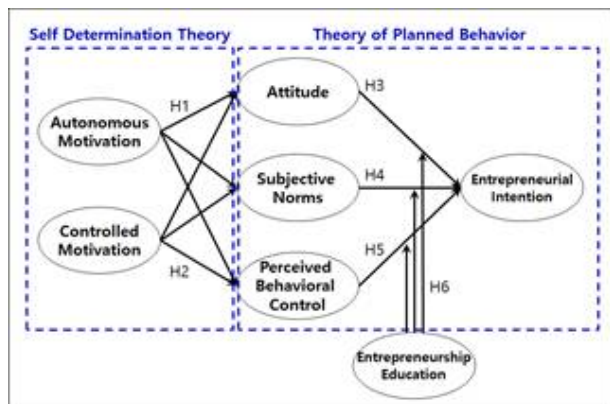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를 독립변수로,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를 매개변수로, 창업 의도를 종속변수로, 창업교육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내적 동기는 “창업을 하는 동기가 즐겁고 기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외적 동기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창업을 하도록 압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태도는 “창업을 하는 것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주관적 규범은 “가족이나 친구들이 창업하는 것을 지지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이나 자신감이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로 정의하였다. 창업 의도는 “창업을 하기로 결심한 정도”, 창업교육은 “창업 정규 과목을 수강한 과목 수”로 정의하였다.

### 3.3 가설 설정

선행연구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13, 17, 42-44], 본 연구는 9개의 인과관계 가설(가설 1-1 ~ 가설 5)과 3개의 조절효과 가설(가설 6-1 ~ 가설 6-3)을 설정하였다.

자기결정 이론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내적 동기는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를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13, 17, 42-44].

내적 동기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 분야인 김진희 외(2019)의 선행연구[17], 재활치료 분야인 Lee et al.(2020)의 선행연구[42], 자원봉사 분야인 Li & Wu(2019)의 선행연구[43]에서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선행연구를 근거로 하여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1-1).

그리고 내적 동기가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 관계도 창업 분야[17], 재활치료 분야[42], 자원봉사 분야[43]에서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를 토대로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1-2).

내적 동기가 지각된 행동통제에 미치는 영향 관계도 창업 분야, 재활치료 분야, 자원봉사 분야에서 모두 유의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7, 42, 43]. 선행연구를 통해 내적 동기가 지각된 행동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1-3).

가설 1-1.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는 태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2.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는 주관적 규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1-3.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반면에 외적 동기의 역할은 내적 동기와는 달리 재활치료 분야, 자원봉사 분야, 창업 분야에서 각각 유의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Luqman et al.(2018)의 선행연구에서는 외적 동기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모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4].

외적 동기가 태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봉사 분야인 Li & Wu(2019)의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3], 재활치료 분야[42]와

창업 분야[17]에서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외적 동기가 창업에 대한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가설 2-1을 설정하였다.

반면에 외적 동기가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 분야인 김진희 외(2019)의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17], 재활치료 분야[42]와 자원봉사 분야[43]에서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의 경우에, 외적 동기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가설 2-2를 설정하였다.

외적 동기가 지각된 행동 통제에 미치는 영향은 자원봉사 분야인 Li & Wu(2019)의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3], 재활치료 분야인 Lee et al.(2020)의 선행연구에서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42]. Luqman et al.(2018)의 선행연구에서도 외적 동기가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44],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하여 외적 동기가 지각된 행동통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가설 2-3을 설정하였다.

가설 2-1. 창업에 대한 외적 동기는 태도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창업에 대한 외적 동기는 주관적 규범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창업에 대한 외적 동기는 지각된 행동통제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의 세 가지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이라는 행동을 수행했을 때 바람직한 결과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인식될 때 형성된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 의도에 일관되고 매우 강한 영향을 미친다[5, 14, 20, 28, 34, 36, 38, 39, 45]. 이와 같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 3).

그리고 선행연구에서 두 번째 요인인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7, 28, 39, 45]. 일부 연구에서는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를 예측하는 세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약한 예측 변수로 나타났으나[5, 7, 29, 34], 창

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유의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4).

세번째 요인인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확인되었다[5, 26, 27, 29, 34, 38, 39]. 계획된 행동이론을 활용한 선행연구들 중에서 지각된 행동통제 대신 자기효능감[8, 9]을 요인으로 사용한 연구들이 있는데, Ajzen(2002)은 지각된 행동통제가 행동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인식 뿐 아니라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는 인식도 포함한다는 점에서 자기효능감과 차이가 있다고 하였고[3], 본 연구에서는 이를 토대로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가 창업 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설정하였다(가설5).

가설 3. 창업에 대한 태도는 창업 의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창업 의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5.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 의도에 정(+)<sup>1</sup>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Shah et al.(2020)의 선행연구에서 계획된 행동이론을 활용하여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한 결과,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있어서 창업교육이 정(+)<sup>1</sup>의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4]. 이에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6-1.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태도와 창업 의도간의 관계를 정(+)<sup>1</sup>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6-2.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과 창업 의도간의 관계를 정(+)<sup>1</sup>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가설 6-3. 창업교육은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와 창업 의도간의 관계를 정(+)<sup>1</sup>의 방향으로 조절할 것이다.

### 3.4 측정 도구 및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는 선행연구의 측정도구를 검토하여 인용하였다. 자기결정 이론에서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는 Li et al.(2016)[46]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3개의 내적 동기 문항과 3개의 외적 동기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는 Linán & Chen(2009)[6]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3개 문항을,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은 García-Rodríguez et al.(2015)[47]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3개 문항을,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는 García-Rodríguez et al.(2015)[47]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4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창업 의도는 Linán & Chen(2009)[6]의 연구에서 사용된 4개 문항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조사기관인 마이크로밀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2020년 5월 21일부터 1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대상은 서울, 경기 지역의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고, 진로에 대하여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기인 3학년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총 251개 설문 응답 중에서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230개의 설문 응답을 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을 위해서 SPSS 24와 AMOS 23, Process 3.4를 활용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과 회귀분석은 AMOS 23 구조방정식모형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분석하기 위한 프로그램은 AMOS, Lisrel, PLS, EQS 등이 있는데, AMOS는 SPSS와 연동될 뿐만 아니라 그래픽이 지원되어 복잡한 모델의 이해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본 연구에서는 AMOS를 활용하였다.

조절효과 분석은 Hayes 교수가 개발한 Process 3.4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Process 3.4는 독립변수와 조절변수의 상호작용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경우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 방법은 데이터의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다는 점과 조사된 데이터로 다시 한번 오차 및 신뢰구간을 추정하는 Bootstrapping 방식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조절효과 유의성을 검증하는데 강점이 있다[48].

## 4. 연구 결과

### 4.1 표본의 특성

연구 대상자들의 특성을 살펴본 결과, 성별은 남성 51.7%, 여성 48.3%이고, 지역은 서울 지역 대학생

66.1%, 경기 지역 대학생 33.9%이다. 학년은 3학년 학생 49.6%, 4학년 학생 50.4%이고, 전공은 이공계열 41.7%, 인문사회계열 33.9%, 상경계열 17.8%, 예체능계열 6.5%의 학생들이 참여했다. 창업교육 이수 과목 수는 없음이 53.9%, 1과목 25.7%, 2과목 10.4%, 3과목 이상 1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ample Characteristics

| Categories                            |                                | Frequency (n=230) | Ratio (%) |
|---------------------------------------|--------------------------------|-------------------|-----------|
| Gender                                | Male                           | 119               | 51.7      |
|                                       | Female                         | 111               | 48.3      |
| Area                                  | Seoul                          | 152               | 66.1      |
|                                       | Gyeonggi-do                    | 78                | 33.9      |
| Grade                                 | Third Grade                    | 114               | 49.6      |
|                                       | Forth Grade                    | 116               | 50.4      |
| Major                                 | Science and Engineering        | 96                | 41.7      |
|                                       |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 78                | 33.9      |
|                                       | Business                       | 41                | 17.8      |
|                                       | Physical Arts                  | 15                | 6.5       |
| Entrepreneurship Education Completion | None                           | 124               | 53.9      |
|                                       | 1 Course                       | 59                | 25.7      |
|                                       | 2 Courses                      | 24                | 10.4      |
|                                       | More than 2 Courses            | 23                | 10.0      |

#### 4.2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연구모형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항목들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측정변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Cronbach  $\alpha$  값을 측정하였고, 6개 변수의 Cronbach  $\alpha$  값이 모두 신뢰도 기준인 0.7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측정모형의 측정항목간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23을 활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시행한 결과 적합도 지수는 사회과학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의 적합도 지수를 살펴보면  $\chi^2 = 222.170$ ,  $df = 155$ ,  $p = .000$ ,  $\chi^2/df = 1.433$ ,  $RMR = .048$ ,  $RMSEA = .044$ ,  $GFI = .912$ ,  $AGFI = .880$ ,  $NFI = .929$ ,  $CFI = .977$ 로서 전체적으로 권장 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중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기준은 표준 요인적재값 0.6 이상, 개념신뢰도(C.R.) 0.7 이상, 평균분산추출지수(AVE) 0.5 이상으로, 요인적재값의 경우 가장 낮은 항목은 주관적 규범의 측정항목 SN1로서 요인적재값이 .578이 나왔으나 수용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념신뢰도(C.R.)와 평균분산추출지수(AVE)의 경우 6개 변수 모두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struct Validity and Reliability

| Variable                     | Item | Factor Loading | Cronbach $\alpha$ | CR   | AVE  |
|------------------------------|------|----------------|-------------------|------|------|
| Autonomous Motivation        | AM1  | .859           | .889              | .898 | .746 |
|                              | AM2  | .891           |                   |      |      |
|                              | AM3  | .812           |                   |      |      |
| Controlled Motivation        | CM1  | .810           | .884              | .865 | .682 |
|                              | CM2  | .896           |                   |      |      |
|                              | CM3  | .720           |                   |      |      |
| Attitude                     | ATT1 | .624           | .777              | .803 | .579 |
|                              | ATT2 | .732           |                   |      |      |
|                              | ATT3 | .847           |                   |      |      |
| Subjective Norms             | SN1  | .578           | .766              | .833 | .630 |
|                              | SN2  | .856           |                   |      |      |
|                              | SN3  | .811           |                   |      |      |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PBC1 | .777           | .871              | .884 | .657 |
|                              | PBC2 | .696           |                   |      |      |
|                              | PBC3 | .905           |                   |      |      |
|                              | PBC4 | .785           |                   |      |      |
| Entrepreneurial Intention    | EI1  | .783           | .931              | .915 | .731 |
|                              | EI2  | .906           |                   |      |      |
|                              | EI3  | .912           |                   |      |      |
|                              | EI4  | .921           |                   |      |      |

$\chi^2 = 222.170$ ,  $df = 155$ ,  $p = .000$ ,  $\chi^2/df = 1.433$ ,  $RMR = .048$ ,  $RMSEA = .044$ ,  $GFI = .912$ ,  $AGFI = .880$ ,  $NFI = .929$ ,  $CFI = .977$

Table 3. Discriminant Validity

| Variable                     | 1    | 2     | 3    | 4    | 5    | 6    |
|------------------------------|------|-------|------|------|------|------|
| Autonomous Motivation        | .864 |       |      |      |      |      |
| Controlled Motivation        | .159 | .826  |      |      |      |      |
| Attitude                     | .542 | .111  | .761 |      |      |      |
| Subjective Norms             | .392 | -.014 | .606 | .794 |      |      |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534 | .318  | .683 | .569 | .811 |      |
| Entrepreneurial Intention    | .579 | .314  | .760 | .565 | .768 | .855 |

대각선 값 :  $\sqrt{AVE}$  값

집중타당성이 검증된 요인들 간의 관별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qrt{AVE}$  값을 상관계수값( $\rho$ )과 비교하였고,  $\sqrt{AVE} > \rho$  여부를 확인하였다. Table 3에서 대각선에 적혀 있는  $\sqrt{AVE}$  값과 상하, 좌우의 상관계수값들을 비교하여  $\sqrt{AVE}$  값을 초과하는 상관계수가

없으면 판별타당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판별 타당성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고 판별타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4.3 가설 검증

측정모형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후, 연구모형에서 제시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을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에서 RMR은 .05 이하이면 양호하고, TLI는 .9이상이면 양호, RMSEA는 .05이하이면 양호, GFI는 .9이상이면 양호, AGFI는 .9이상이면 양호, NFI는 .9이상이면 양호, CFI는 .9이상이면 양호하고, AIC가 낮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의미한다.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able 4와 같고 전체적으로 권장 수준 이상의 적합도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RMR이 .085로 나타났는데 Bentler(1990)는 RMR이 .05이하이면 양호하고 .1이하이면 수용할 만하다고 하였다[50]. 그리고 AGFI는 .874로 나타났는데, Bentler(1990)는 GFI와 AGFI는 표본특성에 기인한 비일관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표본특성으로부터 자유로운 CFI를 권고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AGFI가 .9 이하이지만 CFI가 .9이상이면 수용할 만하다고 하였다[50].

Table 4. Fitness of SEM

| Fitness | $\chi^2$ | df   | p    | $\chi^2/df$ | RMR  | TLI     |
|---------|----------|------|------|-------------|------|---------|
| Result  | 237.187  | 151  | .000 | 1.571       | .085 | .963    |
| Fitness | RMSEA    | GFI  | AGFI | NFI         | CFI  | AIC     |
| Result  | .050     | .909 | .874 | .924        | .971 | 355.187 |

Table 5. Result of Causal Hypothesis Tests

| Hypothesis | Path   | Path Coefficient | S.E.  | C.R.   | p    | Result |
|------------|--|------------------|-------|--------|------|--------|
| H1-1       | Autonomous Motivation → Attitude                         | 0.658            | 0.066 | 6.946  | .000 | Accept |
| H1-2       | Autonomous Motivation → Subjective Norms                 | 0.466            | 0.057 | 5.362  | .000 | Accept |
| H1-3       | Autonomous Motivation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0.533            | 0.062 | 7.46   | .000 | Accept |
| H2-1       | Controlled Motivation → Attitude                         | 0.043            | 0.052 | 0.625  | .532 | Reject |
| H2-2       | Controlled Motivation → Subjective Norms                 | -0.047           | 0.052 | -0.654 | .513 | Reject |
| H2-3       | Controlled Motivation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0.242            | 0.062 | 3.703  | .000 | Accept |
| H3         | Attitude → Entrepreneurial Intention                     | 0.412            | 0.122 | 4.945  | .000 | Accept |
| H4         | Subjective Norms → Entrepreneurial Intention             | 0.115            | 0.079 | 2.261  | .024 | Accept |
| H5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Entrepreneurial Intention | 0.457            | 0.091 | 5.892  | .000 | Accept |

$\chi^2 = 237.187$ ,  $df = 151$ ,  $p = .000$ ,  $\chi^2/df = 1.571$ ,  $RMR = .085$ ,  $RMSEA = .050$ ,  $GFI = .909$ ,  $AGFI = .874$ ,  $NFI = .924$ ,  $CFI = .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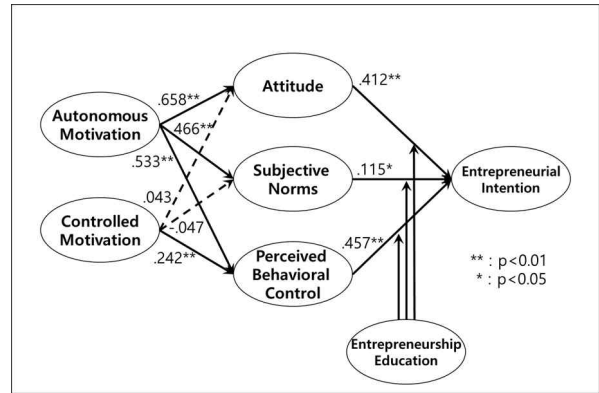


Fig. 2. Result of the Structural Model

#### 4.3.1 인과관계 가설 검증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 창업에 대한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가설 1-1, 가설 1-2, 가설 1-3은 모두 채택되었다. 창업에 대한 외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 통제에만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가설 2-3만 채택되었고, 가설 2-1과 가설 2-2는 기각되었다.

그리고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창업 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가설 3, 가설 4, 가설 5는 모두 채택되었다.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 검증 결과는 Table 5와 같다.

#### 4.3.2 조절효과 가설 검증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는 Process 3.4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은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가설 6-1은 기각되었다.



Table 6. Result of Moderating Effect Hypothesis Tests

| Hypothesis | Path   | coef                         | t    | LCL   | UCL   | 통계량  | Result  |        |
|------------|--|------------------------------|------|-------|-------|------|---|--------|
| H6-1       | Attitude → Entrepreneurial Intention                     | Constant                     | -.14 | -.60  | -.63  | .33  | △R <sup>2</sup> = .000<br>F = .097<br>p = .755  | Reject |
|            |  | Attitude                     | .81  | 10.98 | .67   | .96  |   |        |
|            |  | Entrepreneurial Education    | .16  | .28   | -1.00 | 1.33 |   |        |
|            |  | Interaction Term             | .05  | .31   | -.27  | .37  |   |        |
| H6-2       | Subjective Norms → Entrepreneurial Intention             | Constant                     | .21  | .69   | -.39  | .82  | △R <sup>2</sup> = .013<br>F = 4.571<br>p = .033 | Accept |
|            |  | Subjective Norms             | .68  | 7.42  | .50   | .86  |   |        |
|            |  | Entrepreneurial Education    | -.81 | -1.21 | -2.13 | .50  |   |        |
|            |  | Interaction Term             | .41  | 2.13  | .03   | .78  |   |        |
| H6-3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Entrepreneurial Intention | Constant                     | .62  | 3.55  | .27   | .96  | △R <sup>2</sup> = .010<br>F = 4.465<br>p = .035 | Accept |
|            |  |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 .78  | 11.10 | .64   | .92  |   |        |
|            |  | Entrepreneurial Education    | -.76 | -1.55 | -1.74 | .20  |   |        |
|            |  | Interaction Term             | .35  | 2.11  | .02   | .68  |   |        |

두 번째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은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설 6-2는 채택되었다.

세 번째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창업교육은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설 6-3은 채택되었다. 창업교육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는 Table 6과 같다.

### 5. 결론

본 연구의 연구결과는 첫째,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는 모두 창업 의도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창업이라는 행동은 매우 의도적인 과정이고,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중요 개념인 “계획된 행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모두 행동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계획된 행동이론이 창업 분야에서도 유의하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3, 17, 42-44].

둘째,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고자 하는 동기 중에서 내적 동기는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의 지속 가능성이 더 높고 창업 성과가 더 좋다고 하였다. 내적 동기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 역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13, 17, 42-44].

본 연구의 연구결과 중에서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다르게 나온 점은 외적 동기의 역할이다. Li & Wu(2019)의 선행연구에서는 외적 동기가 태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43], 본 연구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Li & Wu(2019)의 연구는 자원봉사 동기에 대한 연구로서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되면 자원봉사 활동이 매력적이라거나 만족감을 줄 것이라는 자원봉사에 대한 태도를 오히려 감소시킬 수 있지만, 창업의 경우에는 자원봉사 활동과는 달리 진로와 관계된 인생에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외적으로 창업을 하도록 동기가 부여되더라도 창업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Li & Wu(2019)의 선행연구에서 외적 동기는 주관적 규범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43], 본 연구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는 본 연구에서는 외적 동기가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Li & Wu(2019)의 선행연구에서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3]. 즉 한국의 대학생들의 경우 창업에 대해서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경우에도 창업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선행연구의 경우 자원봉사 활동에 대해서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되면 자원봉사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감을 오히려 감소시키지만, 본 연구에서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도록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었을 때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원봉사를 하도록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대학생들은 오히려 자원봉사 활

동에 대한 자신감이 떨어지지만, 부모님이 창업을 하도록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대학생들은 창업에 대한 자신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에 재활치료를 받는 환자들의 내적, 외적 동기를 연구한 선행연구에서는[42] 외적 동기가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미치는 영향이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내적 동기와는 달리 외적 동기는 자원봉사 분야, 재활치료 분야, 창업 분야 등에서 각각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이 조절 역할을 하는지 분석하였다.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창업교육의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Shah et al.(2020)의 선행연구에서는 오만 지역의 대학생들의 경우, 창업에 대한 태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창업교육이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가 나타났는데[34],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유의한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대학에서의 창업교육이 기업가정신 함양에 다소 중점이 덜 하고, 창업 아이템 발굴, 비즈니스 모델 개발, 사업계획서 작성 등 창업 실무에 중점을 많이 두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기업가가 기회를 발견하고 혁신을 통하여 시장에 새로운 가치를 제공함으로써 사업을 일으켜서 경제와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업가정신을 함양하는데, 창업교육이 좀 더 중점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창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창업교육이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족, 친구들이 창업을 지지하는 대학생들이 창업교육을 받은 경우에, 창업교육을 받지 않은 대학생들보다 창업 의도의 증가폭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창업에 대한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도 창업교육은 유의한 정(+)의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는 것이 어렵거나 쉽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창업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창업교육을 받은 경우 그 효과가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주관적 규범과 지각된 행동통제의 창업 의도와 관계에서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는 Shah et al.(2020)의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났다[34].

본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재활치료 분야, 건강 분야 등 다른 학문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었으나, 창업 분야에서는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연구의 초기 단계인 계획된 행동이론과 자기결정 이론의 통합모델을 적용하

여 창업 분야에서도 이 이론이 유의함을 검증했다는 의의가 있다. 둘째 대학생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많은 대학들이 창업교육에 상당한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계획된 행동이론에서 창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지각된 행동통제가 창업 의도를 높이는데 있어서 대학생들 대상 창업교육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실무적 시사점은 첫째 내적으로 동기가 부여되어 창업을 하는 경우, 즉 창업을 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운 일이어서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의 지속 가능성이 더 높고 창업 성과가 더 좋다고 한 자기결정 이론을 바탕으로, 대학에서 다양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내적 동기가 높은 대학생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둘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창업교육이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높이는데 조절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대학생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보다 많은 대학생들에게 창업교육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본 연구결과에서 창업교육을 2과목 이상 이수한 학생들의 경우에 창업교육이 조절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높이기 위해서 창업교육을 2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한계점으로는 첫째, 서울, 경기 지역의 4년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향후 지역을 넓혀서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많은 대학들이 이미 다양한 창업교육과 창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대학에서의 창업교육과 창업 지원 프로그램은 앞으로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전국의 대학으로 지역을 넓혀서 연구를 진행하면,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하고 실무적인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교육은 정규 교과목 뿐 아니라, 창업 특강, 외부 교육기관과 연계한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 방법과 커리큘럼이 운영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수한 창업 교과목 수만으로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향후 다양한 창업교육의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교육 전·후의 효과를 분석해 보거나 교육 커리큘럼의 특성에 따른 교육효과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하면, 대학생들의 창업 의도를 높이기 위한 보다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기획하는데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REFERENCES

- [1] I. Ajzen.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179–211.
- [2] B. Bird & M. Jelinek. (1989). The oper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13(2), 21–30.
- [3] N. F. Krueger Jr, M. D. Reilly & A. L. Carsrud. (2000). Competing model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15(5–6), 411–432.
- [4] A. M. F. do Paço, J. M. Ferreira, M. Raposo, R. G. Rodrigues & A. Dinis. (2011). Behaviours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Empirical findings about secondary students. *Journal of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9(1), 20–38.
- [5] L. Kolvereid. (1996). Organizational employment versus self-employment: Reasons for career choice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20(3), 23–31.
- [6] F. Liñán & Y. W. Chen. (2009). Development and cross-cultural application of a specific instrument to measure entrepreneurial intentions.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3(3), 593–617.
- [7] F. Liñán, D. Urbano & M. Guerrero. (2011). Regional variations in entrepreneurial cognitions: Start-up intentions of university students in Spain. *Entrepreneurship and Regional Development*, 23(3–4), 187–215.
- [8] A. Naktiyok, C. N. Karabey & A. C. Gulluce. (2010).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Turkish case.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6(4), 419–435.
- [9] C. L. Shook & C. Bratianu. (2010). Entrepreneurial intent in a transitional economy: an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Romanian students.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6(3), 231–247.
- [10] V. Souitaris, S. Zerbinati & A. Al-Laham. (2007). Do entrepreneurship programmes raise entrepreneurial intention of science and engineering students? The effect of learning, inspiration and resource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2(4), 566–591.
- [11] A. Tkachev & L. Kolvereid. (1999). Self-employment intentions among Russian students. *Entrepreneurship & Regional Development*, 11(3), 269–280.
- [12] E. L. Deci & R. M. Ryan.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 [13] M. S. Hagger & N. L. Chatzisarantis. (2009). Integrat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nd self-determination theory in health behaviour: A meta-analysis. *British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275–302.
- [14] A. Fayolle & F. Liñán. (2014). The future of research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67(5), 663–666.
- [15] A. Fayolle, F. Liñán & J. A. Moriano. (2014). Beyond entrepreneurial intentions: values and motivations in entrepreneurship.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0(4), 679–689.
- [16] I. Al-Jubari, A. Hassan, & F. Liñán. (2019). Entrepreneurial inten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in Malaysia: integrating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5(4), 1323–1342.
- [17] J. H. Kim, S. B. Lee and S. W. Lee. (2019). Start-up Inten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Self-determination and Goal-oriented Theory. *Journal of Foodservice Management Society of Korea*, 22, 163–184.
- [18] M. Entrialgo & V. Iglesias. (2016).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the antecede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2(4), 1209–1232.
- [19] I. Ajzen. (200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self-efficacy, locus of control,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2(4), 665–683.
- [20] F. Liñán & A. Fayolle. (2015). A systematic literature review on entrepreneurial intentions: citation, thematic analyses, and research agenda.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 Management Journal*, 11(4), 907–933.
- [21] W. N. Almobaarek & T. S. Manolova. (2012). Who wants to be an entrepreneur? Entrepreneurial intentions among Saudi university students. *African Journal of Business Management*, 6(11), 4029–4040.
- [22] E. J. Douglas & J. R. Fitzsimmons. (2013). Intrapreneurial intentions versus entrepreneurial intentions: distinct constructs with different antecedents. *Small business economics*, 41(1), 115–132.
- [23] J. R. Fitzsimmons & E. J. Douglas. (2011). Interaction between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in the formation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26(4), 431–440.
- [24] J. A. Moriano, M. Gorgievski, M. Laguna, U. Stephan & K. Zarafshani. (2012). A cross-cultural approach to understanding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career development*, 39(2), 162–185.
- [25] G. Nabi, F. Liñán, T. Iakovleva, L. Kolvereid & U. Stephan. (2011).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developing and developed countries. *Education+ Training*. 53(5), 353–370.
- [26] T. Kautonen, M Van Gelderen & E. T. Tornikoski.

- (2013). Predicting entrepreneurial behaviour: a test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Applied Economics*, 45(6), 697-707.
- [27] E., H. Autio, R. Keeley, M. Klofsten, G. GC Parker, & M. Hay. (2001). Entrepreneurial intent among students in Scandinavia and in the USA. *Enterprise and Innovation Management Studies*, 2(2), 145-160.
- [28] A. Bandura. (1977). Self-efficacy: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2), 191.
- [29] A. Bandur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2), 122.
- [30] J. Hessels, M. van Gelderen & R. Thurik. (2008). Drivers of entrepreneurial aspirations at the country level: the role of start-up motivations and social security.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4(4), 401-417.
- [31] C. R. France, J. L. France, B. W. Carlson, L. K. Himawan, D. A. Kessler, M. Rebosa, P. M. Slepian. (2017). A motivational interview promotes retention of blood donors with high internal motivation. *Transfusion*, 57(10), 2433-2439.
- [32] M. S. Hagger, N. L. Chatzisarantis & J. Harris. (2006). From psychological need satisfaction to intentional behavior: Testing a motivational sequence in two behavioral context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32(2), 131-148.
- [33] P. M. Wilson, W. M. Rodgers, C. M. Blanchard & J. Gessell. (2003).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Needs, Self-Determined Motivation, Exercise Attitudes, and Physical Fitness 1.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33(11), 2373-2392.
- [34] I. A. Shah, S. Amjed & S. Jaboob. (2020).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 shap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Economic Structures*, 9(1), 1-15.
- [35] M. Z. Asghar, F. Gul, P. S. Hakkarainen & M. Z. Tasdemir. (2019). Validating Entrepreneurial Intentions Questionnaire to Assess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Eğitim ve Bilim*, 44(197).
- [36] V. Fernández-Pérez, A. Montes-Merino, L. Rodríguez-Ariza & P. E. A. Galicia. (2019). Emotional competencies and cognitive antecedents in shaping student's entrepreneurial intention: the moderating role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5(1), 281-305.
- [37] J. J. Liao & W. B. Gartner. (2007). The influence of pre-venture planning on new venture creation. *Journal of small business strategy*, 18(2), 1-22.
- [38] A. Rauch & W. Hulsink. (2015). Putting entrepreneurship education where the intention to act lies: An investigation into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on entrepreneurial behavior. *Academy of management learning & education*, 14(2), 187-204.
- [39] F. Wilson, J. Kickul & D. Marlino. (2007). Gender, entrepreneurial self-efficacy, and entrepreneurial career intentions: Implications for entrepreneurship education.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1(3), 387-406.
- [40] H. Zhao, S. E. Seibert & G. E. Hills. (2005). The mediating role of self-efficacy in the development of entrepreneurial intention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90(6), 1265.
- [41] H. J. Lee & J. S. Kim. (2019). An Effect of Youth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s Characteristics to Entrepreneurial Intention: Focused on the Mediating Effect of Entrepreneurship Recogni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7(3), 13-23. DOI : 10.14400/JDC.2019.17.3.013
- [42] A. S. Lee, P. S. Yung, K. M. Mok, M. S. Hagger & D. K. Chan. (2020). Psychological processes of ACL-patients' post-surgery rehabilitation: A prospective test of an integrated theoretical model. *Social Science & Medicine*, 244, 112646.
- [43] C. Li & Y. Wu. (2019). Understanding voluntary intentions within the theories of self-determination and planned behavior. *Journal of Nonprofit & Public Sector Marketing*, 31(4), 378-389.
- [44] A. Luqman, A. Masood & A. Ali. (2018). An SDT and TPB-based integrated approach to explore the role of autonomous and controlled motivations in "SNS discontinuance intention". *Computers in Human Behavior*, 85, 298-307.
- [45] A. Fayolle, B. Gailly & N. Lassas-Clerc. (2006). Assessing the impact of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mes: a new methodology. *Journal of European industrial training*. 30(9), 701-720
- [46] C. Li, Y. Wu & Y. H. Kee. (2016). Validation of the Volunteer Motivation Scale and its relations with work climate and intention among Chinese volunteers. *Asi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9(2), 124-133.
- [47] F. J. García-Rodríguez, E. Gil-Soto, I. Ruiz-Rosa & P. M. Sene. (2015). Entrepreneurial intentions in diverse development contexts: A cross-cultural comparison between Senegal and Spain. *International entrepreneurship and management journal*, 11(3), 511-527.
- [48] A. F. Hayes. (2017).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 Guilford publications.
- [49] M. S. Kim, J. H. Lee & J. W. Ko. (2013). The Effectiveness of the Entrepreneurship Education Program for Seniors and the Determinants of Entrepreneurial Inten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3), 233-241.
- [50] P. M. Bentler.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정 찬 영(Chan-Young Chung) [정회원]



- 1996년 2월 : 포항공대 컴퓨터공학(석사)
- 2017년 7월 ~ 현재 : 고려대학교 정보대학 산학교수
- 2018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기업가정신, 창업, 경영혁신

· E-Mail : cychung@korea.ac.kr

이 소 영(So-Young Lee) [정회원]



- 1986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신문방송학(석사)
- 2011년 2월 : 고려대학교 경영학(박사)
- 2013년 3월 ~ 현재 : 호서대학교 벤처대학원 정보경영학과 부교수
- 관심분야 : 마케팅, CRM

· E-Mail : claire@hoseo.edu